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애' ... 마케팅 본격화

〈애〉

농협전남본부·전남도, 광주·수도권 홍보행사

단감 시작 ... 체계적 품질관리 공동 선별·출하

표준포장재로 일원화 소비자 신뢰 확보 나서

있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국내 농수산업 계도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좋은 품질의 농수 산물을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체계적인 마케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와 전남도는 이 지역 과실 공동브랜드인 '상큼애(愛)'를 런칭하고 단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다.

전남농협은 27일 "지난 25일~27일 농협광주유통센터, 수도권 농협유통센터(양재, 성남, 고양,창동,삼송)에서 소비촉진행사 및 홍보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애'는 시·군 브랜드 간 과도한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전남 지역 과실의 마케팅 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또 공동 유통 및 물류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우수한 품질의 과실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함께 만든 도 단위 광역브랜드다.

공동브랜드로 출시되는 과실은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의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맛과 당도가 뛰어난 특·상품의 프리미엄 과실만이 출하되도록 엄격한 브랜드 품위를 적용한다.

또 상큼애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일원화된 표준포장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실브랜드, 소비자가 신뢰하는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브랜드명 선정은 지난 7월 전국적인 브랜드 네이밍 온라인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3천여 건의 공모안이 접수되었고 이렇게 접수된 공모안을 내·외부 심사, 네이밍 스크리닝(상표등록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상큼애'를 비롯한 8개의 공모안을 예비 선정했다.

이후 광주버스터미널(유스퀘어), 총장로 우체국 등 광주·전남권 7곳, 농협양재유통센터 등 수도권 3곳에서 총 6천여 명이 참여한 현장 선호도조사 결과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상큼애'를 최종 확정했다.

'상큼애'는 보기에 좋고, 맛도 향기로우며 시원함을 의미한다.

'상큼애'를 이미지화한 워드마크는 후덕한 남도 농업인이 지켜가는 건강한 산과 들, 건강한 바다를 나타내며 전체적인 형상은 건강한 입술로 표현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앞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따고, 키운 상큼애'라는 브랜드 슬로건처럼,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위 과실을 꾸준히 공급해 웰빙시대의 맞춤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출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소비자·농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상큼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륙기자 kroh@kwangju.co.kr



27일 경기도 고양 농협유통센터를 찾은 소비자들이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최근 선보인 이 지역 과실 공동브랜드인 '상큼애(愛)'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주간 증시 포커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OPEC 정기총회 주목

중소형 개별종목 관심율

글로벌증시의 상승에도 코스피지수는 2000포인트 아래에서 횡보하며 엇걸음질치고 있고 코스닥지수는 2015년 이후 박스권하단으로 저점을 형성했던 600포인트 이하로 하락했다. 신종시장의 부진속에서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글로벌 자금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이 과거 종목중심의 투자 형태에서 코스피200지수 등 주요지수의 등락에 따라 기계적으로 종목을 사고파는 패시브투자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중소형주의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재보다 시중에 더 부진적인 것은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외면속에서 개인을 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미투자자가 주무대인 코스닥시장은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속에서 극심한 침체를 보였다.

불확실성을 확대시킨 글로벌이슈로는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12월 금리인상가능성 증대를 들 수 있고 국내이슈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최순실게이트'와 외국인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중소형주 비중축소라 할 수 있다.

그럼 바닥을 모르고 600선이하로 하락한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가매수에 참여하기 보다는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필자가 9월과 10월초에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이제 와서 600포인트가 붕괴되고 있는데 똑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개별종목들의 주가도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제는 코스닥시장의 수급여건을 악화시킨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언제 개선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요인 중 트럼프당선은 시장이 약제로서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국내요인 최순실게이트에 따른 국정혼란도 이번주 국회가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면 향후 정치일정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랜기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도 12월 14일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미 시장은 약재를 알고 있고 이런 약재가 현실화 되는 시점은 12월 둘째주와 셋째주가 될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개인투자자들마저 소극적이며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폭과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중소형개별종목에 대해 비중 축소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약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전에 매수시점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주 관심을 가질 이슈로는 향후 원유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OPEC 정기총회(30일)와 국내 정치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이 현실화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30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니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국가인증 지역 고품질 농식품 우수성 홍보

'광주·전남 스타팜 박람회'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이하 농관원)과 대한민국 스타팜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조영식)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남도청 1층 로비(윤선도홀)에서 '제1회 광주·전남 스타팜 박람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스타팜(Star Farm)'은 국가인증을 받은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선도하는 GAP·친환경인증, 유기농인증, 전통식품, 슬로푸드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 등을 받은 농장(업체) 중 모범이 되는 대표농장을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이 선정할 것 말한다.

현재 스타팜은 전국적으로 48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광주·전남에는 순천 한솔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하여 곡씨네푸드, (주)시무연 등 8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인증을 선도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표 Star Farm 22개 농장(업체)이 참여하여 스타팜 농장에서 생산하는 국가 인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시·판매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정빈 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맡겨줌으로 국가인증을 받은 광주·전남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소비가 촉진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광륙기자 kroh@kwangju.co.kr

고온·가뭄에 ... 고추생산량 12.5% 감소

참깨는 재배면적 늘어 16% 증가

올해 고추 생산량은 고온·가뭄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참깨 생산은 재배면적 여건 호조 등으로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8만5000t으로 지난해(9만8000t)보다 12.5%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3만2000ha로 지난해보다 2335ha(-6.8%) 감소했고 10a당 생산량도 같은 기간 6% 줄어든 266kg을 기록했다.

고추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고온·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도별로는 경북이 2만t으로 전국에서 생산량

이 가장 많았고, 전남(1만4200t), 전북(1만3900t) 등이 뒤를 이었다.

고추의 연도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감소하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참깨 생산량은 1만4000t으로 지난해(1만2000t)보다 16.2% 증가했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8.1% 증가했고 개화기에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10a당 생산량은 50kg으로 지난해보다 8.7% 증가했다.

도별로는 경북이 3200t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전남(2800t), 전북(1600t)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